



바람의 아들 전설이 되다

헝가래 '바람의 아들' 이종범이 지난 26일 오후 광주 무등야구장에서 KIA와 LG의 경기가 끝난 후 은퇴식을 가졌다. KIA 선수들이 그라운드로 나와 이종범을 헝가래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이종범 은퇴 “타이거즈 유니폼 입고 돌아오겠다”

2012년 5월26일, 그라운드엔 불탄 이종범의 바람은 그쳤다. 선수 이종범은 이날 수많은 기록과 이야기를 남기고 무엇보다 익숙하고 또 잘 어울렸던 타이거즈 유니폼을 벗었다. 글러브를 내려놓은 이종범, 바람은 갔지만 전설이 남았다.

◇전설을 물려준, 아버지 이종범

동물적인 감각으로 관중을 환호시켰던 유격수 이종범은 외야수 끝단클럽 수상자가 포수 마스크까지 쓰며 투수를 제외한 모든 포지션을 소화했던 야구천재였다. 선수로서 유니폼을 입은 마지막 날 이종범은 경기 시구자로 마침내 마운드에 올라 시타자로 나선 아들 정후군(14·휘문중)에게 마지막 공을 던졌다.

아버지를 빼어 닮은 외모와 야구 센스로 KIA 선수들은 물론 팬들에게도 사랑을 받았던 정후군은 이종범의 가장 든든한 응원군이자 더 이를 악물고 그라운드를 뛰게 했던 원동력이었다. 아버지가 은퇴를 결정한 날 누구보다 서럽게 눈물을 쏟아냈던 정후군이지만 은퇴식날 경기장을 가득 채운 팬들의 눈물과 환호에 큰 감동을 받았다.

정후군은 “은퇴식을 통해 다시 한번 아버지가 어떤 존재였는지 알 수 있었다. 예전에 아빠가 84도루 기록을 내기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다. 힘들겠지만 그 목표에 도전하겠다. 꼭 아빠와 같은 야구선수가 되겠다”고 말했다.

이종범은 “경기 전 선수들에게 모자를 씌어준 것, 내 유니폼을 입고 뛰어준 것 등 행사가 슬플 정도로 좋았다. 프로는 말이 아니라 실력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을 정후가 느꼈을 것이다. 나한테는 좋은 추억이 됐고, 정후에게는 특별한 경험이 됐을 것이다. 나의 야구 모습을 많이 닮았다. 좋은 선수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노력을 당부한, 만형 이종범

야구천재로 불린 이종범이었지만 천재가 후배들에게 남긴 마지막 당부는 ‘노력’이었다.

이종범은 “실력에 대해 아쉬운 것은 하나도 없다. 다만 왜 더 열심히 하지 못했나 하는 아쉬움은 있다.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무언가를 더 갈구하면서 뛰었다. 하다보니 도루왕이 됐고, 196개의 안타를 쳤고 뛰다 보니 일본을 가게 됐다. 후배들이 최고가 되기 위해 또 팬들의 소중함을 알고 한 게임, 한 게임 한 타석 한 타석 열정을 갖고 희생하며 팀을 위해 뛰면 좋겠다. 뒤에 적힌 자신의



눈물 유니폼을 반납한 이종범이 끝내 눈물을 흘리고 있다.

이름을 드높이고 팬을 감동시킬 수 있는 선수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종범은 야구 선수의 꿈을 심어주고 또 함께 야구를 했다는 영광을 안겨준 특별한 선배였다. 노력과 희생을 당부한 선배에게 승리를 안겨주고 싶었던 선수들의 간절한 바람은 6-5 재역전승이 됐다.

이날 1회 선취타점을 올렸던 김원섭은 3-4로 전세가 역전된 7회말 2사 1·2루에서 우중간을 가르는 3루타를 터트리며 5-4로 승부를 뒤집었다. 평소 묵묵한 표정의 김원섭이지만 이날 만큼은 두 손을 치켜들고 포효

하며 사람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했다.

마무리 한기주는 자원등판을 했다. 9회 2사에서 윤요섭에게 2루타를 내줬지만 정성훈을 삼진으로 잡아내며 승리에 마침표를 찍었다.

◇그라운드를 울린, 선수 이종범

이종범에게 작별 인사를 고하기 위해 예매 전쟁을 벌였던 KIA팬들은 서울발 광주 기차와 버스까지 매진시켰다. 예매를 하지 못한 팬들은 오전부터 매표소 앞을 지키는 등 영웅을 보내기 위한 수고로움을 마다하지 않았다. 사인회 현장에서 눈물을 쏟아내며 영웅의 눈시울을 젖게한 이들도 있었다.

‘KIA의 전설 한국야구의 전설 함께해서 행복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종범’. 이종범 현장 경기가 열렸던 26일 무등경기장에 걸렸던 현수막에 적힌 이 글귀가 관중석을 가득 채우고 또 눈물로 TV알을 지킨 수많은 팬들이 이종범에게 하고 싶었던 얘기였을 것이다.

이종범은 “아빠 손을 잡고 경기장을 와서 이종범이라는 선수를 알았던 이들이 다시 야구가 좋아서 왔는데 그 사람이 없다면 슬플지도 모르겠다. 준비 잘해서 다시 박수를 받으며 돌아오고 싶다”며 “아침에 어떤 불을 쳐야 하나.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할까. 오늘 경기에 나갈 수 있을지라는 고민 없이 평범한 사람으로 즐겁게 잘 지내고 있다. 나를 더 돌아볼 수 있게 조금 더 쉬었다가 야구를 위해 돌아오겠다. 언젠가 꼭 KIA 타이거즈 유니폼을 입고 돌아오겠다”고 팬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프로야구 올스타 ‘베스트 10’ 투표 시작

프로야구 별들의 별을 뽑는 ‘베스트 10인 기투표’가 29일 시작된다.

이번 투표는 오는 7월21일 대전구장에서 열리는 ‘2012 프로야구 올스타전’에 참가할 선수를 뽑는 자리로 7월8일까지 인터넷과 모바일 그리고 오프라인을 통해 진행된다. 웨스턴 리그(KIA, LG, 한화, 넥센)와 이스턴 리그(삼성, SK, 롯데, 두산) 추천선수 중 최대 득표 선수 10명씩 20명이 선정되며, 각 리그별 감독 추천선수 12명씩 추가돼 총 44명의 올스타가 구성된다.

KIA에서는 윤석민(투수), 김상훈(포수),

최희섭(1루수), 안치홍(2루수), 이범호(3루수), 김선빈(유격수), 김원섭·이용규·이준호(이상 외야수), 나지완(지명타자)이 ‘베스트 10’에 도전한다.

투표는 한국야구위원회(www.koreabaseball.com)와 9개 구단, 포털 사이트 네이버, 2012 프로야구 메인스폰서인 팰도 및 야쿠르트, 스포츠21, 프로야구 선수협회 등의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고, ‘KBO LIVE 프로야구 2012’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모바일 투표도 가능하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광주 FC, 최하위 대전에 1-2 패배

전남은 부산과 0-0



광주 전사들이 또 다시 고개를 숙였다.

광주 FC가 28일 대전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최하위 대전 시티즌과의 K리그 14라운드 경기에서 1-2로 패를 기록했다.

전반 8분 만에 광주가 지경득에게 골을 내줬다. 전반 40분에는 대전 케빈의 논스톱 슈팅이 나오면서 0-2가 됐다. 두 골 모두 수비수들이 움직임이 아쉬웠던 실책이었다.

광주는 전남 42분 수비수 이한샘을 빼고 공격수 주양파울로를 투입했지만 득점없이 전반전이 마무리 됐다.

후반 10분 최하위 감독이 복귀를 빼고 조우진을 투입해 스피드 업에 나섰다. 후반 17분에는 정우인을 빼고 임선영을 투입하면서 공격에 무게를 실었다.

교체가드는 활발한 공격을 만들어냈다. 광주가 후반전 중반 이후 공격의 주도권을 잡으면서 대전의 골문을 거세게 겨냥했다.

후반 20분 교체 들어온 상대 골키퍼 최현이 자리를 잡자마자 주양파울로가 오른발 슈팅을 날리며 대전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다.

아쉽게 득점을 기록하지 못했던 주양파울로가 후반 24분 골맛을 봤다.

페널티에어리어 왼쪽에 있던 주양파울로가 박기동이 찰라 준 공을 받아 왼발 슈팅을 날렸다. 공은 골키퍼 최현을 비껴 골문으로 빨려들어가면서 1-2가 됐다.

이후 광주의 공격에 불이 붙었지만 결정력 부족으로 추가 득점은 나오지 않았다.

최하위 감독은 “(A매치 휴식기로) 주어진 2주간 수비 견고하게 잘하고, 공격적인 전술에 변화를 주겠다. 6월 홈에서 4번 경기 있으면 실점하지 않는 경기를 하도록 준비 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부산 원정에 나선 전남 드래곤즈는 28일 부산 아이파크와의 경기에서 3연승을 기록하지는 못했지만 0-0으로 비기며 승점 1점을 추가했다.

/대전=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호남제일 음식문화를 사랑하는 아리랑하우스 **여/름/메/뉴**

삼계탕 전복삼계탕 굴비정식

건강한 우리 음식으로
즐거운 만남을 준비하겠습니다!!

금수장호텔·아리랑하우스
예약문의 (062)525-2111 (계림동 홀플러스 건너편)

Since 1981 1등 맛집 연속 선정
30년을 고객과 함께 지켜온 광주의 대표 맛집

광주 1등 맛집
광주광역시 GWANGJU CITY

● 착한 가격의 편안한 객실 ● 각종 모임을 위한 연회장, 접객실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을 위한 대소 연회장 | 광주 와인 문화1번지 모리나리 | 맞춤형 출장도시락 www.geumsoojang.com